

삼성그룹 이견희 회장 별세



이 회장 보유주식 18조원... 상속세 10조 예상이던데 삼성그룹 회장의 입관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

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을 보내 이 회장을 애도했다. 이 회장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지하 2층에 마련됐다.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28일 오전이다.



이 회장을 아주 가까이서 보좌했던 장종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오전 9시 19분쯤 첫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았다. 김기남 삼성 부회장, 강인엽 사장, 진교영 사장 등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사장단도 9시 35분쯤부터 속속 빈소에 도착했다.

부분을 차지한다. 또 삼성생명 2조 6198억원(20.76%), 삼성물산 5642억원(2.86%), 삼성전자 330억원(0.08%), 삼성SDS 16억7342만원(0.01%) 등이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게 될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인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상속세액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

문에 향후 2개월 간 삼성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에 따른 주식 평가액이 늘어나 상속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지난해 4월 이후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의 주가가 두 달만에 80% 급등해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대폭 늘어난 전례가 있다.

삼성그룹이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치게 되면 국제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뒤, 최종 상속세액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타 세목과 달리 상속세는 신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제청이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액을 확정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마어마한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 방식 유력 이 회장의 유족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최소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셈이 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전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에 따라 당연히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금으로 10조원 이상이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가는 수년전부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TFT를 가동하여 상속세 납부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속세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흔들 정도의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건축문화제' 건축상 현장영상과 건축설계 이야기 등 취업 도움

건축설계 이야기 질문&답변, 실시간 온라인 건축속터뷰 등... 31일까지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건축문화제 2020'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건축설계 분야의 취·창업에 도움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서울건축문화제'를 키워드로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전, '서울, 건축산책' 등 연계전시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건축문화에 대해 공모전을 통한 여러 면모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올해 시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건축적 제안을 다룬 '사회적 건축,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꾸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에 대한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도시건축혁신전'을 통해서도 새로운 건축적 시각을 느껴 볼 수 있다.

서울건축문화제는 '서울시 건축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문화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가 소통하는 장이 되는 건축문화축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예의 '서울시 건축상 대상 수상자'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건축설계 분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특별전시도 건축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Advertisement for 'Jindo Arirang' (진도아리랑) featuring images of Kimchi, Shellfish, Green Onion, and Turmeric, with a woman in a white dress. Text: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and '진도아리랑 검색'.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플랫폼 배달노동자정책방향과제안' 열띤 토론 개최

지난 10월 22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 공동주최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여러 의원뿐만 아니라 道 관련 부서 공무원, 지역 배달사업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현황과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윤중 연구원은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2.0~2.3%

수준으로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0·60대의 고용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특히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은 경제적 곤란이나

타 업종 구직 실패 등으로 선택한 일자리로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력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이 11.8% 수준이나 10년 이상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은 64.3%로 나타나고 있어 타 업종은 경력이 쌓일수록 숙련도 증가 등으로 위험이 낮아지는 데 반해, 배달노동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언제나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들 배달노동자들의 1/3은 일평균 10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하는 전업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특히 가장 위험한 유행행태를 보이는 20대 이하에서 가입률이 최저로 나타나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과제”라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은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와 관련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장조사, 주요 이슈 사례연구, 공공배달업 연계, 공공일감 창출, 이륜차 수리점 인증,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공제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며 “플랫폼 노동 전담부서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구체적 정책을 시행하는 유일한 지자체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최근 배달산업 최초의 사회적 합의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을 성공리에 마친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가 아닌 노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추진했기에 성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때 더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달대행업체 ㈜링크플러스 강정훈 대표는 배달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산재보험이라 강조하며 “배달대행사 및 배달대행라이더의 세무처리 기준과 관련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달노동자 스스로의 직업의식 제고와 사회적 인식개

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이은열 부장은 “산재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

단도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담론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행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경제노동위원회와 노동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상찬기자

###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의회 내 최대 21명의 도의원을 위임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의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홍보와 교육 문화재로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 동해표기운동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인 독도 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비록 독도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1,370만 경기도 도민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 들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농정해양국, 환경국과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독도의 정책 역량을 총 결집해 종합적인 독도수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며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특위는 총 21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찬기자

###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본격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3일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해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증진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

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용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며 현행 1~6개월의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진 중인 조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기도가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해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재은/기자

### 김은혜 의원 “임대차3법, 헌법에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위배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23일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 주대입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과괴법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같이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상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차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과거 판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귀속까지 위한

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부동산 계약이 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큼의 절박한 공익적 목적

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위헌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의 종료를 원해서 입주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거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존 세입자등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도 거

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며 임대차3법이 야기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사회적 유대감·연대를 크게 해치게 되어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촉조심사도 거치지 않고 소급적용된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온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헌법에 배치되는 조리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 전가된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두석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기.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FAIR TRADE 공정의역

##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FAIR TRADE TOWNS KOREA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혁신의 희망'

## 부산 & 파리도시개발공사 철도부지 재생 혁신 공동

### 국제세미나 개최 - 부산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혁신의 희망'

부산시는 파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오는 10월 28일 오후 5시에 '부산-세마파 철도부지 재생 혁신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개회사 상드린느 모레 세마파 사장의 인사말씀 [발제] 프랑스 파리의 '철도부지 재생사례,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 [발제] '부산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에 따른 쇠퇴지역의 혁신의 희망 조성'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부산 복합에 유치하고자 하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더불어 경부선 철도부지를 혁신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주제발표에서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호주 멜버른의 페더레이션 스퀘어,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런던의 킹스크로스 센트럴 등 철도 공간을 창의적인 도심 공간으로 만든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부산이 겪고 있는 철도시설로 인한 도심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바로 기존 도심 철도 노선을 지하 구간으로 직선화하고 기존

철도부지에 '혁신의 희망'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된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후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와 정진규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은 유튜브 'Lee convention Youtube Channel'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이번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중계는 한국어, 불어, 영어의 3개국어로 동시 통역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세미나를 통한 국제적 협력으로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가길 '부산대개조'의 핵심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시는 고립과 단절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분리된 것은 이어주고 정제된 곳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한 국제적 협력으로 부산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단계별 도시계획'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 대구시설공단, 온라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발표

## 집중하는 어린이를 위한 비대면 그림그리기 대회 열어

대구시설공단은 23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구와 대구시설공단의 모습'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심사 결과 총 43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비대면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부문에서 총 246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작품의 창의성 주제적합성 표현성 대중성을 2차에 걸쳐 심사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

최재은/기자



# 양주시, 양주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시민과 함께 만듭니다

양주시는 양주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시민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시민과 함께 참여해 기후·환경위기에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린뉴딜의 8대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지역별 기후·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혁신적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중심 등 4대 중점추진 분야를 제시한다.

이에 기초한 사업유형은 기후탄력, 물순환, 물안전·안심, 미래차, 자원순환, 생태복원, 생태휴식정장대기, 환경교육, @생활환경 등 10개 유형이다. 특히 복수의 사업유형을 공간적·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시, 그간 공간과 분절돼 추진되던 다양한 개선사업을 결합하고 스마트 기술 등 신규 아이디어를 더해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예산규모, 결합 유형 수 등을 고려해 문제해결형 20곳, 종합선도형 5곳을 구분해 선정할 예정이다. 문제해결형은 도시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유형을 결합해 마을 단위

수준의 파급성이 높은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하며 2년간 국비 60억, 시비 40억 등 최대 1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종합선도형은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선제적인 녹색전환을 위해 마을 혹은 그보다 큰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이상의 사업유형을 결합하는 유형으로 2년간 국비 100억, 시비 67억 등 최대 167억을 투입하게 된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오는 28일까지 양주시민을 비롯해 시 소재 직장인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청 환경관리과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모델은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와 제안평가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최종 채택된 공모사업은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제출, 제안자에게는 연말 시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양주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시민 공모사업은 전국 제일의 친환경 늘 푸른 감동양주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기후 탄력적 미래환경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감동도시 양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 창원시, 적극행정 문화 확산 주간 운영

## 이달 26일부터 2주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및 직원 실천다짐 결의

창원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를 적극행정 주간으로 정하고,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민추천 안내 포스터와 적극행정 제도의 필요성과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공무원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적극행정 홍보영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활

용한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적극행정 주간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과 함께 시민을 향한 창원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고백 '2020 창원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적극행정 마인드 확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몽호/기자

# 전국 최초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행

##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과 디지털배움터를 접목한

부산시가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이 집합 교육에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교통문화연수원, 일반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협회 등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방안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배움터'에서도 교육에 특화

한 '디지털배움터'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장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속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및 문제해결의 장이다.

현재 부산지역 디지털배움터는 109곳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10월 말 3일간의 시범 교육을 거친 뒤, 11월 본 교육과 12월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5개 기관 간 협업을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결실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은/기자

# 정서진 노을과 함께 바라보는 마음속 진실

정서진아트큐브 2020년 세 번째 기획전시 '퍼블릭 드로잉 프로젝트 : 녹색광선 Le Rayon Vert'



인천서구문화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서진아트큐브의 2020년 세 번째 기획전시 '퍼블릭 드로잉 프로젝트 : 녹색광선 Le Rayon Vert'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림책 작가 하영과 인천시민 24명이 함께하는 전시로 오일파스텔을 사용해 정서진의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보는 공공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전시하게 된다.

지난 한 달간 시민들은 드로잉 키트를 집으로 배송받고 작가가 친절하게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방법과 팁을 전수하는 영상 강의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집에서 그림 수업을 듣고 직접 그려 보는 과정을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전시물로 내놓게 된다.드로잉 수업의 이름이자 전시명인 '녹색광선'은 주일 배려의 동명소에서 모티브를 얻은 에릭 로메르의 영화 '녹색광선'에서 따왔다.

녹색 광선은 해님이 직전 수평선과 맞닿은 태양이 잠시 녹색으로 물드는 희귀한 현상이다.이것을 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은 물론 상대방의 마음속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현상이다.

특히 정서진아트큐브가 해님이 유명한 정서진 광장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서진의 해님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녹색광선을 찾아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진실들을 드로잉해보는 이번 프로젝트

는 드로잉 수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시를 감상하러 온 시민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그림책 작가 하영은 서구에 거주하며 서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로 '산책의 순간들', '걷는 마음' 등 산책하며 본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책을 출간했다.현재 인천서구 가정동 서점 안착에서는 하영작가의 드로잉클

래스와 그림책 원화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하영작가는 이번 정서진아트큐브 기획전시3 '퍼블릭 드로잉 프로젝트 : 녹색광선 Le Rayon Vert'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온라인 드로잉클래스를 진행했고 클래스를 통해 완성된 시민들의 작업물과 하영작가의 작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를 꾸려나갈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 보령시, 제24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걸맞은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 제시 기대

보령시는 '일상탈출 보령머드축제'를 주제로 제24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독창적이고 세련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축제에 성장한 머드축제에 걸맞은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접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참여방법은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품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작품실사 출력본을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출품작을 대상으로 보령머드축제를 가장 잘 표현했는지, 글로벌 축제를 선도하는 이미지가 부각됐는지, 인물과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색다른 디자인으로 구성됐는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지 등을 고려해 축제 및 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공모 결과 대상은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은 20만원이 주어진다.기타 공모와 관련된 작품규격, 출품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내년 24회째를 맞



이하는 보령머드축제 포스터는 일상을 탈출하는 생동감과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역동성 등을 생생하게 담아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로

인지를 확고히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유능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김영록 지사, "환경친화축산 실현 적극 협력" 당부

22일 전남 축협조합장과 축산 발전방향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남 지역 축협 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해 축협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간담회는 도내 18개 지역축협 조합장과 김지서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1명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논의에 앞서 "전남축협 운영협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와 가축시장 휴장 동참과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축산 피해 농가에 인력과 장비, 구호물품 등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며 "축협 조합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지사는 지역축협의 현안 사항을 청취 후 전남 환경친화형 축산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남축산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가축분뇨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 확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 학교우유 급식 확대 방안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들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축협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환경친화형 축산의 미래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 청정지역,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영만/기자



# 문화도시 부평, 서브컬처 기반의 문화 창업 실험 펼쳐 부평지하상가서 '지하x실험가게 프로젝트' 진행

부평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평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브컬처 기반의 문화 창업 실험 '지하x실험가게 프로젝트'를 부평지하상가 모두물에서 진행한다.

서브컬처란 그래피티를 비롯해 스케이트보드, 전자음악, 펑크락, 힙합 등 소위 하위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서브컬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도시 부평의 프로젝트다.프로젝트는 부평지하상가 모두물과 ㈜마포코퍼레이션이 협력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는 부평지하상가 모두물에서는 8~10개의 공실을 활용해 팝업 스토어 형식의 서브컬처 콘텐츠로 구성된 실험가게를 열어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DJ공연과 이색적인 전자음악 공연을 즐기고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체험할 수 있다.또 작가와 협업해 그래피티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이 외에도 각 실험가게에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제작한



개성 있는 티셔츠를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상품들은 온라인 판매 대행 플랫폼인 '마플샵'을 통해 구매도 가능하다.부평문화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 실험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사회 경

제적 가치를 창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향후 문화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만나다

시, 새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즈유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대전시의 새 브랜드 슬로건 'Daejeon is U'를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Daejeon is U'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에서 '대전광역시'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이 제공되며 내려받기 시점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선착순 5만 4,000여명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기존 대전광역시 채널 가입자도 자동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그림왕 양치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 양경수 작가와 콜라보로 제작된 이모티콘은 Daejeon is U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를 담은 이모티콘들로 구성



됐다.대전시 이용균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브랜드 슬로건이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며 "많은 분들이

대전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으면서 일상에서 쉽고 재밌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

광주시,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광주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투명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행구기 ▲라벨 떼기 ▲찌꺼뜨리기 ▲전용수거함 배출하기 4단계로 배출 종이팩도 마찬가지다.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활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중 70%가 올바른 분리 배출이 안 돼 재활용률이 떨어졌다.

종이팩은 ▲내용물 비우기 ▲물에 행구기 ▲펼친 후 말리기 ▲전용수거함 배출하기 등 4단계로 분리배출또한,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찌꺼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과일망, 과일포장재, 칫솔, 볼펜, 고무장갑, 은박비닐 등은 종량제 봉



투에 버려야 한다. 광주시는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에 현수막 홍보물 등 3종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단독주택, 원룸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공공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정결사업(총 1092

명/63억원)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박재우 시 자원관리과장은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생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에서 새로워진 강동을 만나요

상암로 풍성로 양재대로 일대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장 공사



강동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 부착방  
지시설 설치 및 보수에 나섰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신주  
와 가로등주 등 지주형 공공 시설물  
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공사를 시행한다. 부착방지시설 설  
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인 신규설치 구간, 길동 이면도로),  
설치된 부착방지판이 노후화된 유  
지보수 구간, 풍성로)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전단지  
등은 지속적 단속에도 현실적으로  
100% 근절이 어렵고 정비 후에도  
그 흔적이 남아 도시미관을 해친  
다.

또한 노후화된 부착방지판의 파  
손·오염에 따른 보행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특수코팅  
표면 처리된 부착방지 도장을 시공  
해 이러한 불법 첩지류 발생을 사전

에 차단하고 기존 잔여물 제거와 부  
착방지판 교체·보수를 통해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확대 설치  
와 유지보수를 통해 불법 유동광  
고물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예정"

이라며 "단속·정비·과태료 처분  
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전단지를  
첩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사  
구 전역으로 부착방지 도료 시공 사  
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최광수/기자

# 용인시, 일반·개인택시 1900여대 청결상태 점검

용인시는 23일 시민들이 쾌적하  
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일  
반·개인택시 1923대의 청결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14~15일  
21~22일 4일간 개인택시는 드라이  
브 스루 방식으로 삼가동 미르스타  
디움에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차  
고지에서 진행했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에 의거해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요금미터기 작  
동상태,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시 등  
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코  
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비치  
와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도 함께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  
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시는 앞선 10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  
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1월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  
급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00만원  
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찬/기자

# 창원시,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 조성  
예정지 개별적 개발행위 등  
무분별한 개발 사전 방지



창원시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과 전기·기계융합 연구단  
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산  
구 불모산동 일원에 17만㎡ 규모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  
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불  
모산동 일원에 수립중인 도시관리계  
획 결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어 방지가 필요한 지역일대  
를 주민공람 실시 이전 조치하는 것  
으로 토지소유자 등 주민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

전협의를 완료한 구역경계를 기  
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5일자로 고시됐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  
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주요 제한내  
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다만,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  
간연장,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  
난 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에  
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창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항  
후 배후공간으로 예정된 불모산  
지구를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  
연구원의 지능전기분야를 기계와  
융합해 신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을 위한 R&D 거점 배후공간인 전  
기·기계융합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

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인안 절차를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  
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이  
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  
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  
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  
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영호/기자

# 평택시,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캠페인 실시

평택시는 지난 22일 평택의 중심  
상업지구인 평택대 일대 입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단속 캠페인  
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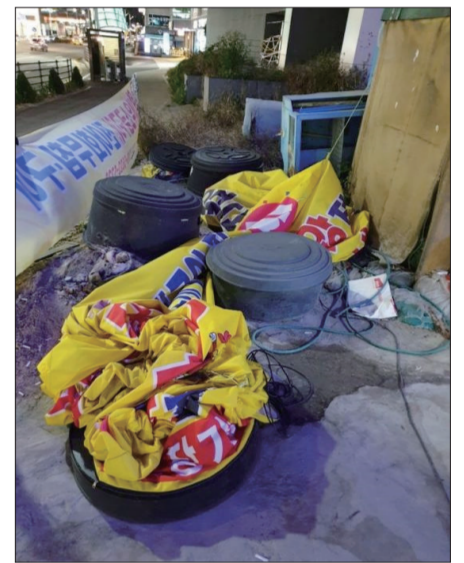
평택대 일대는 시내 대표적으로  
불법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난립  
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에어라  
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  
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  
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  
이다. 야간 단속 캠페인은 평택시 주  
택과, 용이동,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등  
총 15명이 함께했으며 이번 캠페  
인을 통해 평택대 일대에 총 50여개  
소의 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주에게

에어라이트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단속·정비 안내문을 함께 배부해 불  
법에어라이트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또한 기존에 계고장을 발부했던  
불법에어라이트 중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6  
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완료했  
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의  
일방적인 에어라이트 정비뿐만 아니  
라 시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지속  
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수  
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 대전소방, 소방장비 관리상태 일제점검 실시



대전시 소방본부는 오는 26일 부  
터 11월 6일 까지 2주 간 '소방장비  
관리상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점검은 대전 소재 5개 소  
방서와 소속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

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소  
방차,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  
장비 등 각 장비별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소방차량 관  
리 상태 차량 조작능력 숙지 상태 구  
조·구급·소방통신장비 운영 현황 현  
장활동대원 개인보호장비 이상 여  
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  
로 최우수 소방서 최우수 119안전센  
터를 선정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  
는 "소방장비 관리, 운용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이번 장비점검을 실시한  
다"며 "현장 활동 시 소방장비로 인  
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장비 조작  
능력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 활  
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정화/기자



# 동대구 더센트로 데시앙

# 고양시,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성황리 개최

### 17개국 400명이 온·오프라인 참여, 영향력 있는 글로벌 마이스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고양시는 글로벌 마이스 행사인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소노캄 고양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장 참가자 50여명을 비롯해 17개국 400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마이스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컨벤션뷰로가 주관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글로벌 MICE 산업 시장 동향과 전략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국제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4회를 맞아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된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포스트 코로나의 MICE 데스티네이션 회복: 위기 관리전략 그리고 디지털 미팅의 미래'를 주제로 1일차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2일차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과 GDSM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로 구성됐다.

개막행사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환영사와 황희곤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마이스산업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기업, 수출, 일자리와 관광까지 경제의 모든 요소를 끌어안는 거대한 품으로서 마이스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과 일산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고양시의 거대한 경

제지도 완성을 통해 마이스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첫날 행사인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하이브리드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4개국 27명의 마이스 전문가가 코로나19 극복방안에 논의하는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세션1. 회의산업에서 뉴 비즈니스 모델

후주 대표적 PCO인 아리넥스 창업자 로잘린 맥레오드와 CEO 니콜 위커는 주제강연을 통해 e-러닝, 기술 개발 등을 통한 MICE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성은 이도플래닝 대표, 오규철 ㈜엔씨아이코리아 대표, 손정미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 소장, 이슬기 세종대학교 교수의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2. MICE 목적지 프로모션 및 하이브리드 행사 활용법 두 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대만 미팅서비스사 GIS그룹의 CEO 제이슨 예는 MICE 목적지 프로모션 및 하이브리드 행사 활용법에 대한 강연으로 디지털 미팅의 품질을 올리고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윤은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실

장, 이정우 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홍주석 수원컨벤션센터 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허준 교수는 "업계

의 연구·개발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과 협력 증대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션3.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메뉴 및 도시 대처방안 세 번째 세션에서 킨텍스 컨벤션마케팅팀 양주은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메뉴 및 도시 대처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고양시와 킨텍스의 방역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 오픈 등 메뉴로서 킨텍스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 진홍석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다른 집합장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시산업을 재개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대구컨벤션뷰로 국장, 김미경 고양시청 마이스산업팀 부팀장, 이현주 링크팩토리 이사, 권병은 김포문화재단 팀장, 김동욱 코엑스 뉴마케팅팀장이 각각의 도시와 메뉴의 사례를 들어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김미경 부팀장은 회의산업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MWC 2020 등 글로벌 대형 전시가 취소됐으며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홍보 및 무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또한 화상상담 확대 및 온라인 전시장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전시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메뉴컨설팅 전문가인 이현주 이사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 CES 2021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온라인 전시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 전시산업에서도 하이브리드 또는 온라인화가 주를 이룰 것이고 오프라인 전시

공간의 소규모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메뉴 수익모델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4. MICE 스타트업 성공사례 제시 마지막 세션은 유스노 유노스 Evenesis CEO의 주제강연으로 시작했다. MICE 관련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제시한 강연으로 그는 오프라인 행사 현장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하이브리드 스트리밍 솔루션',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 기술 제시와 더불어 디지털 활용에 자신감을 가질 것을 권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채널케이 이윤경 대표, 엑싱크 송보근 대표, 엔더블유네트웍스 성민욱 대표, ㈜아이티엔베이직 민경욱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엑싱크 송보근 대표는 "코로나 이후 라이브 스트리밍은 필수 기술이 될 것이므로 온라인 이벤트만의 기능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개발한 성민욱 대표는 MICE 분야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 이미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첫날 행사와 달리, 두 번째 날 행사는 전면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제컨벤션협회에서 진행한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테이블'은 고양, 방콕 등 4개 도시의 지역관광 추진조직이 코로나 사태 도시별 대응사례 발표와 전문가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진행된 'GDSM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에서는 GDSM의 대표 가이 박우드의 진행으로 한국과 시드니의 데스티네이션 지속가능 계획 등 사례발표와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고양컨벤션뷰로 이상열 단장은 "온·오프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행사에는 대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테이블에는 우송대학교 학생 50여명이 온라인을 통한 참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 프로젝트 광명핀셋발굴단 본격 활동 나서

### 광명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함께 찾고, 살피고, 나누고, 돕고' 비전 선포식 진행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광명시,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기아자동차소하리 공장이 힘을 합쳤다.

광명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핀셋발굴단 발대식'과 'PLAY 기아 희망동행 차량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상재 회장, 박종숙 핀셋발굴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광명핀셋발굴단'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정 증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광명시·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이다.

광명시 1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핀셋발굴단이 되어 지역 내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이들 가정을 지원한다. 지원은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로 모금된 성금으로 200가정에 최대 50만원, 총 1억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힘을 보태 기아자동차와 전국고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전국고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1대를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명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함께 찾고, 살피고, 나누고, 돕고'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비전선포식은 나무에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으

며 나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물은 민과 관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고, 나누고, 돕는 노력을, 꽃은 위기가 해소되어 웃는 광명시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렇게 민과 관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시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주시는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차량을 지원해주신 기아자동차와 전국고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광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상재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실시될만 모아주신 성금을 꼭 필요한 이웃을 찾아 전달하겠다"며 "직접 발로 뛰어주시는 핀셋발굴단, 협조해주시는 광명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핀셋발굴단 박종숙 단장은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명시희망나기운동본부의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에는 지난 2월 5일부터 기업, 개인, 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 현재 총186회까지 이어져 4억8천여만 원의 성금과 2억 원 상당의 성품이 모였다.

전순희/최정부/기자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광명시 최초 주민총회, 광명5동·7동 주민 2021년 마을 사업 투표로 결정



2019년 11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광명5동, 광명7동 첫 주민총회 개최

광명시 최초 주민총회가 광명5동과 광명7동에서 각각 열렸다. 광명5동과 광명7동은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1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광명5동과 광명7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운영세칙과 자치회칙을 제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위한 마을 사업 발굴에 힘써 왔다. 광명5동 온라인 주민총회·상설투표소, 374명 참여광명5동은 현장 주민총회 대신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참여가 힘든 주민을 위해 12일부터 16일 까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상설투표소도 함께 운영했다.

주민총회 정족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총회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 인구수의 0.5% 이상으로 광명5동의 경우 74명이다. 주민총회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투표결과 온라인 159명, 상설투표소 215명 등 총 374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2021년 주민

자치회 운영계획 찬성, 2021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찬성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21년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은 우리 동네 공구 무료 대여사업, 너부대 근린공원 설치물 보존사업, 가족사진 촬영 및 장수 사진 촬영, 전봇대의 변신, 너부대 야외공연장 기체조 프로그램 운영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김인기 광명5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발로 뛰어나다며 홍보를 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주민총회로 개최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내년에는 주민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누는 축제형 주민총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참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7동 현장 주민총회, 8개 마을 사업 찬·반투표, 240명 참여  
광명7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도덕산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현장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인 도덕산 유아숲 놀이터, 도덕로56 옹벽 벽화사업, 개구쟁이 풀놀이장, 마을축제, 찾아가는 어르신 마을교육, 마을신문 제작,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배드민턴 전용구장 운영사업 등 8건에 대해 찬반 투표와, 찬성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행사장 참석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 투표소를 설치해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광명7동 주민총회 정족수는 9월 24일 기준 전체주민 1만6991명의 0.5%인 85명으로 이날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수는 182명, 사전투표 참여인원은 58명으로 총 240명이 참여했다.

8개 사업에 대한 찬반투표결과는 8개 사업 모두 찬성표가 많았으며 우선순위 선정에서는 도덕로56 옹벽 벽화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운영사업, 마을축제, 찾아가는 어르신 마을교육, 마을신문 제작,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개구쟁이 풀놀이장, 도덕산 유아숲 놀이터의 순으로 나왔다. 성시상 광명7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참여와 공론의 장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어 미흡한 점이 많지만 마을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총회가 열린 광명5동, 광명7동을 방문해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주민총회가 열린 것을 축하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축하드린다”며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열심히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어 광명시가 자치분권 도시, 주민 참여 행정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정한 마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최정부/기자

# 영등포에 공연잔치 열렸네... ‘힐링 콘서트’ 개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영등포 문화예술단체 신작·대표작 공연

영등포구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동네에서 만나는 공연축제 ‘모람 모람 콘서트’를 개최한다.

2019년 1회 ‘우정과 환대의 예술제’에 이어 2년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활동해온 공연문화예술단체의 신작과 대표작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축제다. 가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비롯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을 구민들에게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축제는 모두 영등포아트홀에서 처음 선보이는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달 28일 애니메이션 명곡을 영상과 함께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콕핏스튜디오의 ‘애니뮤직대모험’, 30일 김탁환 작가의 원작을 판소리로 새롭게 탈바꿈한 창작집단 사복싸목 ‘한국호랑이 왕대의 모험’을 비롯해 다음달 6일에는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다양한 음색이 조화를 이룬 타루의 ‘말하는 원숭이’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준비돼 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들이 클래식 명곡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건반 위로 옮긴 한국리스트 협회의 ‘Piano 2,4,8,12 Hands’와, 영상과 현악·성악이 함께 만나 클래식의 지루함을 덜어낸 한우리오페라 예술단 ‘양상블 로만자의 작은 음악회’ 등 구민들의 가을 감성을 자극할 클래식 공연들도 마련됐다.

공연 기간 동안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해독’ 주제전을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는 무료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행하며 객석 간 거리두기 및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지침과 더불어 공연 입장 전 반드시 발열 체크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구는 이외에도 축제 기간 내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공연 관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예정이다. 육선 및 인터파크를 통한 인터넷 예매와 영등포문화재단 전화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

다. 이와 함께 2개의 공연을 예매하면 1개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 2+1 패키지도 준비돼 있으며 전화예매에 한해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에게 드리는 힐링 종합선물세트”며 “오랜만에 선보이는 공연인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광주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첫 수확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육성해온 국내육성 신품종 하우스감귤을 올해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감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적응이 가능한 신소득 작목 발굴·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감귤연구회를 중심으로 8농가 1.2ha의 하우스감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감귤 신품종 확대보급, 재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농가 맞춤형 전문컨설팅 및 역량 강화교육 등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하우스감귤은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 육성한 ‘하례조생’ 품종이 대부분이며 체험 및 직거래 판매를 위해 속기

가 빠르고 과피색이 다른 품종을 일부 재배하고 있다. 이 품종들은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서 맛이 좋다. 올해 수확한 감귤은 1kg, 2kg 단위로 소포장해 직거래 및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농가별 감귤 따기 체험도 계획하고 있어 감귤을 맛보고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안전하고 맛있는 감귤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체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 사용이 편리한

#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샤인머스켓 포도 저온저장이렇게 하세요

‘샤인머스켓’ 포도는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청포도이다.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장년층은 물론,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 젊은 층과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아 소비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도내에도 재배 면적과 출하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과일이다.

추석 출하를 겨냥한 시설재배를 제외한 노지재배의 경우, 9~10월 중순에 걸쳐 수확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렇게 ‘샤인머스켓’을 수확한 농가에서는 출하량을 분산하고 소비자에게 연중 공급하기 위해 저온저장을 한다.특히 과립이 크고 당도가 높아 명절 선물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 설 명절까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이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기술지원하고 나섰다.

질변화가 적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수확 즉시 선과장으로 옮겨 과일 품온을 낮춰야한다.품온이 높은 상태에서 플라스틱 필름에 밀봉하거나 포장할 하게 되면 내부에 물방울이 생겨 부패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고 사용을 위해서는 저장고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훈증제나 염소계 살균제 등을 이용해 살균하는 것이 좋다.

저장온도는 과일이 얼지 않는 최저온도인 0℃를 기준으로 상대습도 80~90%가 적절하다.아울러 저장고 내 냉각기의 바람이 과일에 직접 닿게 되면 결빙에 의한 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

플라스틱 필름과 유헤패드를 함께 사용하면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부패율을 줄여 저장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이영숙 연구사는 “저장고 소독을 위해 유헤



훈증을 한 경우 24시간 밀폐해 소독 후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용기자

## 경북교육청, 복식학급 학생 학습권 보장에 전력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이다.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 학습 지도 시간 부족 등으로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2018년까지 편성기준은 두 개 학년 10명 이하였다.이를 올해 7명 이하로 낮췄으며 그 결과 2년간 61개 복식학급이 해소됐다.2022년에는 6명 이하까지 편성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복식학급 협력강사제를 도입해 28개교에 총 31명의 강사를 지원했다.

총 지원 예산은 3억1000만원으로 복식학급 수업 시간에 협력강사를 투입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도, 학습 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난 9월에는 복식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절차와 유형, 복식학급 경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식학급 운영 매뉴얼을 개발·배부했다.

10월 초에는 복식학급 운영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외와 건의 사항을 수합해 온라인 연수를 기획했다.지난 14일 복식학급 교원 1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협의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복식학급 수업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오는 11월에는 복식학급을 처음 담당하게 되는 교원을 위한 ‘복식학급 운영 Q & A’개발에 들어간다.12월 중 개발을 완료·배부할 예정이다.경북 수업나누리에서는 복식학급 담당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복식학급 교실, 온라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북은 68.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35개교, 219개 학급에서 1,000여명 학생이 복식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복식학급과 소규모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 2020 특별기획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

## 가을 감성 듬뿍 담은 안동문화예술의 향연

2020 특별기획 소규모 문화축제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이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지역 문화 공간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안동시가 주최,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고 기와 흥이 넘치는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총집합해 그야말로 안동 문화판 페스티벌로 펼쳐진다.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깊어가는 가을날 안동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즐기며 심신을 힐링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이번 축제에는 안동에서 활동하는 100여개 문화예술인 단체가 참여해 공연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축제 기간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동의 소담하고 아름다운 문화 공간들에서 계절러스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또,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은 탈춤공원 특설무대에서도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축제는 별도의 관객을

모객하지 않고 운영되기에 모든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SNS로 송출되고 현장상황을 반영한 편집영상으로도 업로드해 현장을 찾지 못한 관객들의 아쉬움을 달랜다.탈춤공원 특설무대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제한적으로나마 관객들을 수용하고 안전 요원들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객석은 거리두기를 준수해 좌석을 배치한다.

특히, 일부 구간은 간이 텐트를 설치해 가족, 연인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해 그동안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공연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문화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신명나는 문화예술의 향연 속에 깊어가는 가을의 매력을 만끽하며 지친 일상 속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 경주시 양북면 명칭변경 찬성 88.3%, 새명칭 ‘문무대왕면’ 압도적

주민설문조사 새 명칭 제안의 76.5%가 ‘문무대왕면’ 선택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경주시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주민설문조사 결과 1,288세대 중 1,137세대인 8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기술항목인 새 명칭 제안에는 ‘문무대왕면’이 76.5%로 압도적이었다.조선시대까지 감포, 양남과 함께 동해면으로 불리던 ‘양북면’ 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방위에 따라 붙여진 지명이다.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고귀한 왕의 뜻을 묻은 세계 유일의 수중릉인 문무대왕릉이 1,300년이 넘도록 동해를 지키고 있는 양북면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문무대왕면’이 선택된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가 추구하고야 할 유·무형의 가치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 밖에도 문무면, 대왕면 등 문무대왕 관

련 명칭이 17.8%, 대종면, 대종천면이 2.2%, 기타 기립사면, 토함산면, 석굴암면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양북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새 명칭 선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주시는 명칭변경추진위원회에서 새 명칭안을 선정해 의결하면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더불어 산과 바다, 문화유적이 아우르고 있는 양북면이 오랜 관광도시 경주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향유하는 감성 로컬 스테이 명소로 호국정신과 삼국통일정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교육의 메카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양북면이 새 명칭과 함께 비상할 것”이라며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 김천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모면사무소를 찾아가다

김천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소 및 다양한 행정·민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2일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위치한 어모면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모면 현장민원실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수리했고 코로나 19로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김천의료원에서는 혈압·혈당 및 골다공증 검사를 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경로당이 폐쇄되어 운영하지 못하였던 교통봉사대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경로당에 벽시계를 제공

해 주시는 등 면민들에게 행복을 전해 줬다.또한 예쁜손글씨로 에코백 만들기, 천연염색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건축, 국제 및 지방세, 의료 급여, 지적 등 행정관련 각종 상담을 비롯한 이·미용, 장수사진, 심폐소생술 교육, 핸드드림커피 등 행정 및 민간서비스를 제공했다.현장민원실을 찾은 어모면민은 “우리 면을 찾아오셔서 치매조기 선별검사, 혈압·혈당·골다공증검사 등 건강체크도 해주시고 머리 컷트, 장수사진, 각종 체험으로 코로나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어모면 현장민원실은 코로나 19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착용, 손소독, 열체크 등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생활민원 7개분야, 이동전문봉사 11개분야, 주민불편 순회봉사 3개분야, 생활편의교육 2개분

야 총 4개반 23개분야에서 3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읍·면·동지역의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민원과 각종 행정·민간서비스 제공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고 있으며 김천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으로 화합 문화정착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몽호기자

## 영천시,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 개관

10월 27일 개관, 화랑설화를 테마로 한 레저복합형 문화공간

영천시는 화랑설화를 테마로 조성한 레저복합형 문화공간 화랑설화마을을 오는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개관식은 화랑설화마을 진입마당에서 아리랑태무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현판식,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개관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주말에는 2,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아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랑설화마을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약소국 신라를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던 화랑도를 기반으로 김유신장군, 화랑설화,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성한 레저복합형 문화체험 공간이다.주요시설로는 신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화랑4D동영상관이 있고 야외에는 설화체험마을과 국궁체험장을 갖췄으며 편의시설로는 그린스테이션, 풍월뿔, 공연장 등이 있다.신화랑우주체험관은 화랑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2종류의 VR체험을 할 수 있다.화랑배움터는 자연 속에서 수련한 화랑들처럼 아이들이 화랑의 수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키즈존이다.4D 돔 영상관에서는 귀화랑성을 재해석한 21세기 신귀화랑성 이야기를 4D 입체영상으로 10분간 상영한다.

아외에는 김유신의 일대기 모형,



화랑마당, 낭비성 전투체험이 갖춰져 있는 설화체험마을과 전통 활쏘기인 국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국궁 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풍월뿔, 공연장, 잔디광장, 벽천폭포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그린스테이션 1층에는 휴게실인 영천관, 세미나실, 샤워장 등이 있고 2층에는 방문객 커피가 조성되어 간단한 차와 음료를 즐기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향후 카페와 한복대여점이 입점 예정으로 있어 방문객들에게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화랑설화마을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3월에서 10월까

지는 10:00~오후 6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10:00~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이용요금은 일반인 기준으로 신화랑우주체험관 3,000원, 화랑배움터 5,000원, 화랑4D동영상관 3,000원, 국궁 화살 10발 2,000원이며 영천시민은 단체요금을 적용받는다.최기문 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개관인 만큼 화랑설화마을을 방문하는 분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영천관광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 김해시,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 개최하다

## 예술로 풀어가는 가야왕도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

김해시는 남명정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를 오는 10월 24일 제1회 전국 남명어린이 창작 동요제를 시작으로 장유대청중앙공원,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향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예술로 풀어가는 가야왕도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창작 공연, 시민참여 예술행사, 학술대회, 서화전과 같은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24, 25 양일간 장유대청중앙공원에서 남명포토존과 개막식을 포함해 볼거리가 다양한 야외행사가 진행된다. 남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행사인 창작공연 마당극 '경의 검' 공연과 생활예술인 페스티벌, 청소년 페스티벌 등 시민 주체의 행사가 개최되고 전시행사로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남명의 시조를 소재로 한 서예, 문인화 등을 전시하는 남명서화전 특별초대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김해향교에서 '남명 소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 외 2가지 주제로 학술행

사가 개최되는데, 토론을 통해 남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명 조식 선생은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그의 의와 경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선비정신은 많은 제자들을 감화시켜 남명학파가 생성되기도 했다. 재야 지식인으로서 실천을 중시한 그의 사상은 임진왜란 시기 의병활동으로 계승됐고 그의 여러 사상들은 아직도 충언의 본보기로서 남아있다. 그의 사상은 중년기에 완성됐으며 그 시기를 김해 대동면 산해정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명 사상의 측면에서 김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외 홍보를 최소화하고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학생사생대회와 백일장은 공모전 형식의 비대면 대회로 변경했으며 행사장 내 안전요원을 배치해 거리띄우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철저히 기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남명 조식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산해정이 자리한 김해에서 남명사상을 계승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신적 가치가 확대대하는 현대 사회에서 큰 의

미를 가지는 남명사상이 시민들에게 널리 전달되어 전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변한, 그 시대 부산을 담다'

## 2020년 북천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부산시 북천박물관은 10월 23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0년 특별기획전 '변한, 그 시대 부산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금까지 발굴된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을 정리하고 그 연구성과를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삼한시대 부산에는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변한 12국 중의 하나인 변진독로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널무덤과 덧널무덤 등 무덤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켜묻거리를 함께 묻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와질토기가 생산되고 무기, 공구, 농구 등 다양한 형태의 철제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생산된 철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반이 됐으며 이후 가야 문화를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은 동래지역의 온천동, 북천동, 내성, 낙민동 유적 금정지역의 노포동, 구서동, 두구동 유적 기장지역의 방곡리, 가동, 동백리 유적 영도의 조도패총 등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널무덤과 덧널무덤에서 출토되는 각종 와질토기 둥근고리 큰 갈, 고사리무늬 마늘쇠 등 철제류 노포동 유적 유리옥 장신구 낙민동 100번지 유적의 골각기 등 대표적인 삼한시대 유물 200여 점이 공개된다. 또한, 널무덤과 덧널무덤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분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영상으로 제공된다. 전시 관람은 전시 기간 내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북천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한편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은 북천박물관 홈페이지 온라인박물관 또는 유튜브 북천박물관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번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북천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 원류인 변한시대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보고 500년 이상 계속되었던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 김천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11월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김천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되고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접수는 국제청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사업체, 공동대표자, 올해 창업자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자가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19도, 경제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세요~

**신속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착을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검색창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검색,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9월24일과 25일에 한하여 원활한 신청, 접수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출력제)로 접수

**확인지급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명에 필요한 소상공인 / 후속적후 신청관련 상세안내문(내선) 신청 원장

**문의** 전화 :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114 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문단지, 이제는 '보문투어패스'로 즐기세요

## 하나의 모바일 티켓으로 48시간 맘껏 자유롭게 즐기

경주동궁원은 48시간 동안 보문지역 내 동궁원을 비롯해 주요관광지 10여 곳 중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 관광할 수 있는 '보문투어패스' 상품을 출시해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문투어패스'는 경북투어패스 홈페이지와 네이버쇼핑,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11번가,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등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동궁원 등지에서 모바일 티켓 확인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보문투어패스는 크게 실속형과 고급형이 있으며 실속형은 동궁원, 손재림 화폐박물관, 키티트뮤지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악기월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급형은 실속형에 또봇정크아트뮤지엄,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이 추가된 구성이다.



실속형과 고급형은 빅2와 빅3 두 가지 유형으로 선택에 따라서는 최대 14,1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보문주요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

덧붙여 내년 1월초까지 스누피 전시회가 진행중인 우양미술관이 포함된 패키지도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가맹점으로 별채반 교동쌈밥, 료미, 황남관 한옥호텔, 경산도 등 주변 식당 및 숙박 시설과 제휴를 맺고 있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궁원은 가을을 맞아 원내 곳곳에 국화단지를 조성돼 있어, 코로나19

한반식기자

정명호기자



# 대구 세트럼 대원 칸타빌



# 임실군, 미래성장 핵심 옥정호...섬진강 르네상스 성큼 신안군 도초면 하수정화 '자연정화생태습지' 준공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강조

임실군이 옥정호 명품생태관광 사업을 핵심으로 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로 성큼 다가선다.군은 26일부터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와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각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재정사항 등 점진에 돌입했다.관광치즈과와 경제교통과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등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 최우선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업무보고는 한국관 뉴딜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첨단 미래산업의 투자유치 전략과 임실군의 대표산업인 옥정호, 임실치즈, 성수산, 오수 반려동물산업의 중점개발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특히 관광치즈과 업무보고에서는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

적으로 다뤄졌다.붕어섬 에코가든과 관광경관도로 에코누리캐피트, 에코투어링 루트 등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운데 내년 6월과 8월 스카이워크와 붕어섬 출렁다리 등이 준공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군은 붕어섬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 옥정호 수변 일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군은 올 한해 최소 5천억 원대 예산 달성 농촌협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임실공공도서관 개관, 임실군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진행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 구축 옥정호·임실치즈·성수산·오수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개발 임실을 중심지 개발 가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다.또한, '코로나 19'와 관련해 전 군민 마스크 배부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등 군민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친 한해였다.내년 한 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옥정호 명품생태관광기반 구축

을 비롯해 도시재생 및 중심지 활성화 임실치즈 식품·관광 명품화 성수산 산림휴양 개발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생활SOC 확대 등 7대 중점시책을 바탕으로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본격적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날 심민 군수는 보고회를 통해 "올 한해 직원들 모두 노력해 준 결과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것이 군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신속하게 행정사항을 해결하고 한발 앞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열의와 신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마을단위 인공 하수처리시설 대체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확대 추진

신안군은 지난 22일 도초면 한밭마을에서 '자연정화 생태습지' 준공식을 가졌다.이날 준공식은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비공·도초 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도초 한밭마을 자연정화 생태습지는 습지면적 1,862.8㎡로 기존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0억원의 10분의 1정도인 2억 4천만원을 투입해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6월에 완공되어 인공 하수처리시설을 대체하는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이다.생태습지는 침전 및 지류시설과 연꽃, 미나리, 물개구리밥 등 친환경적인 수생식물에 정화작용을 거쳐 수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한밭리 주민들은 "한밭리는 옛날부터 생활하수가 전부 한곳으로 흘러들어 수질이 좋지 않았으나, 이렇게 마을입구에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물도 정화가 되고 경관도 개선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앞으로 자연정



화 생태습지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의 수질을 개선해 농업생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정주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친환경 자연정화 생태습지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의 수질 개선 기능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와 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것"이라며 "한밭마을 생태습지 조성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기석/기자

##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전국 우수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운영성과 평가, 전국 190개 중 12개 선정

임실엔치즈낙농특구가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 장관표창과 5000만원의 표창금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해 실적을 토대로 전국 190개 특구를 평가해 임실엔치즈낙농특구 등 12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최종 선정, 발표했다.평가는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를 서면평

가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세차례에 걸쳐 심도깊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2016년도에 지정된 임실엔치즈낙농특구는 면적 76만5천㎡에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및 임실N치즈클러스터,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을 운영해 지난 해 19개의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195명, 매출액 336억원의 성과를 거뒀다.임실엔치즈낙농특구는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주도의 제품연구와 개발을 추진해 8종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4건의 특허등록을 통한 제품개발 성과를 이뤄냈다.임실N치즈클러스터의 고속도로휴게소와 치즈카페 등의 운영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특히 임실N치즈클러스터를 통해 49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4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임실지역특구사업의 기반인 낙농산업, 유제품 가공산업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관광·체험과 연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임실N치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브랜드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한국형 치즈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 부안군보건소, 건강Dream 이동구강교실 재개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노후화 구강보건사업 차질 2억 확보 새 단장

부안군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건강 Dream 이동구강교실을 다시 운영했다고 밝혔다.군은 그동안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의 노후화로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이 있었으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4인

승 버스를 구입하고 치과진료 장비와 휠체어 리프트를 탑재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은 치과의사와 구강사업담당자 3명이 한 팀을 이뤄 구강검진, 치과진료, 구강위생 처치 및 스케일링, 불소겔 바니쉬 도포, 틀니보관법 및 세척방법 홍보 등을 시행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치과진료 및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자 보건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돼 군민들에게 구강보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접근성이 여의치 않고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못한 주민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해 지역의 구강건강지킴이로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태/기자

## 무안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국비 10억 확보

무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무안을 중심지역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과 군비 12억원 등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사업대상지는 주거지역과 학교 등이 위치한 무안을 중심지역으로써 대부분의 도로가 12m이하로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고

보행여건이 열악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사업을 통해 차도와 분리된 보도설치, 턱낮은 보도포장 등 편안한 보행공간 확보와 고원식 교차로 교통안전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교통사고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무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연계해 군민의 생활환경과 보행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어 군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

한 보행환경과 사람중심의 교통 안전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적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악플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악플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악플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악플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악플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 당진시, RE100산단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당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예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했다.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으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당진시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힘입어 2018년 태양광발전으로 전환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올해 7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낙연 당대표 외에도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과 오영훈 의원 강선우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홍장 당진 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친환경 산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간 전력 거래나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지침 마



련 전에 RE100산업단지에서 전력 자유거래 시범 실증이 가능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 그린뉴딜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그린뉴딜 제도화'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법의 국가기본법 격상과 기초지방정부의 참여의무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K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지속가

능발전 정책과 연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 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며 "국내 최초의 RE100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원호기자

# 서천군, '서천, 보고 또 보고 시티투어' 운영

학생, 귀농·귀촌인, 일반인 등 다양한 코스 선보여

서천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서천의 다양한 역사 유적지와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천시티투어의 추가 코스 '서천, 보고 또 보고 시티투어'를 지난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코스는 3가지 테마로 지역 내 유치원생~고등학생이 주 이용 대상인 '우리 동네 수학여행' 귀농·귀촌인 단체 및 개인을 주 이용 대상인 '서천, 더 알아보기' 모든 관광객과 주민이 대상인 '서천, 노을빛 밤마실 투어'가 있다. 우리 동네 수학여행 코스는 아침 9시 학교에서 출발해 문헌서원,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장항스카이워크·장항송림산림욕장, 금강하굿둑 관광지, 신성리갈매밭, 한산모시관을 방문한다. 서천, 더 알아보기 코스는 아침 9시 서천특화시장에서 출발해 치유의 숲, 장항스카이워크·장항송림산림욕장, 6080맛나로거리, 신성리갈매밭, 한산모시관, 문헌서원을 다니는 코스로 구성됐다. 서천, 노을빛 밤마실 투어는 제목 그대로 노을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오후 4시에 서천특화시장

에서 출발해 장항스카이워크·장항송림산림욕장, 6080맛나로거리, 신성리갈매밭을 다니며 서해의 노을과 야간 경관을 갖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코스에 10명 이상

예약 시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 운행 전 차량을 소독하고 손소독제 비치, 승차 전 발열 검사, 상시 마스크 착용, 승차인원 20명 이내 제한 등을 실시한다.

고정화기자



# 파죽지세의 천안시축구단, 팬들과 함께 만드는 승리 노린다

천안시축구단 V 창원시축구단, 천안종합운동장

스플릿 라운드 돌입 후 B그룹에서 파죽지세의 기세로 선두를 달리는 천안시축구단은 오는 25일 창원시청과 홈경기를 갖는다.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홈경기인 만큼 팬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다. 5경기 4승 1무의 기록도 긍정적이지만, 8골 1실점이라는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시즌 종료까지 창원, 양주와의 홈경기 2경기를 남겨둔 현재 B그룹 1위를 위해 닥점, 무실점을 이어가야 한다. 창원과 지난 만남에선 3-3으로 양 팀 도합 6골이 터지는 혈투를 벌였다. 경기 시작 후 23초 만에

김상필이 선제골을 넣으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후 전반 종료 직전 또 다시 김상필이 추가골을 넣었으나 조석재와 후반 교체 투입된 창원의 외국인 선수 타쿠마의 멀티골로 역전을 당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고석의 극장골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 무승부로 종료됐다. 지난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수비의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한 천안은 최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천안은 9위로 9승 6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창원은 11위로 7승 7무 6패를 기록 중이다. 남은 두 경기가 홈경기인 데다 팬들과 함께 한다는 이점을 살려 스플릿 라운드 '무패'를 기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조주영이다. 조주영은 이적하자마자 모든

경기에서 나서며 12경기에서 7득점을

올렸다. 지난 청주전에선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고 전주전에선 헤더골의 정석을 보여줬다. 빠른 스피드와 연계플레이 그리고 결정력까지 갖춘 조주영의 발끝을 주목해야 한다. 창원과 경기의 앞문 김태영 감독은 "최근 선수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홈경기인 만큼 팬들의 사랑에 승리로 보답하고 싶다"며 각오를 전했다.

천안과 창원의 경기는 천안종합운동장 W구역의 일부만 오픈해 선착순 500명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또, 선착순 100명에게는 키링을 증정하며 경품추첨 이벤트와 승리 시 김평래가 쓴다 '승리의 흥산타임'을 진행한다.

김원호기자



#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산불피해 복구공사 본격 시작

지난해 강원 영동권 대형산불로 소실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재해복구공사를 통해 내년에는 새로운 동해시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공사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시공사 선정 등을 마치고 23일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시공사·공사관리관·감리단 등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도비 318억원을 포함한 총 3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복구공사는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시는 이번 복구공사를 기존의 해상군락지 복원을 기반으로 특색있는 숲 체험시설과 정원을 조성하고 타 리조트와 차별화된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캠핑리조트는 35동 51실 규모의 단독형 숙소와 커뮤니티 하우스, 스낵 카페, 어린이 놀이장, 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해안 캠핑리조트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연 동해시장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동해시를 대

표하는 랜드마크형 캠핑리조트로 조성해, 동해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흐름에 부합하는 캠핑·치유·정경의 캠핑특별시로 나아가도록 복구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영월군, 한반도 전기카트 체험장 YOUNG-HERO 개장

영월군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카트 체험장을 오픈한다. '한반도 전기카트 체험장'은 한반도 습지생태문화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트 체험로 산책로 포토존 및 카페테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카로 20분간 총 320m의 길이를 체험하면서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체험장 주변에 산책로를 별도로 마련해 가족, 연인들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했다. 주민들이 '전기카트 체험장'을 직접 기획하고 실시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장학, 교육, 회의 등을 거치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역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반도권역협동조합'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지역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준기 농촌협약팀장은 "코로나로 실내 여행을 자제하는 만큼 야외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몸소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전기 카트장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4일에 개장식을 치른 후 다음날인 25일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체험장 조성을 위해 벌목한 낙엽송을 주민들이 직접 깎아 20m 높이의 솟대를 만들고 영월의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지형을 본 따 트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담았으니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전기카트 체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한반도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영월군 한반도면 4개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체험장은 '영월군 한반도면 안새내길 63-33'에 위치해 있으며 주중, 주말 및 공휴일 10:00 ~ 19:00까지 운영한다. 요금은 인당 15,000원이며 영월군민 및 단체 20인 이상 시 1인당 12,000원으로 3천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만식기자



# 노박래 서천군수, 유기쌀 재배단지 벼 수확 현장 방문

농민 격려 및 의견 청취... 노군수 "농민 소통과 실질적 지원에 힘쓸 것"

노박래 서천군수는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정책 현장체감'의 일환으로 23일 서래야 유기농쌀 재배단지 벼 수확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기농쌀 재배단지 회원 및 서래야쌀 재배단지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와 연이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래야쌀 재배단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품질 쌀 생산지로 500ha의 고품질 단지, 430ha의 무농약 단지, 70ha의 유기 단지 등 총 1000ha에 달한다. 매년 5000여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형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 품목으로 유통되고 있다. 유기 재배 농가주 노형태 씨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생육이 불량해 일부 벼가 도복되고 등숙 기간이 짧아 수확량이 평년 대비 상당량 감소하는 등 어려운



이 많았다"며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해주셔서 힘이 난다"고 고마운 마음을 밝혔다. 노박래 군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일궈낸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함

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 김상호 하남시장, 천현초 학생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운동'

김상호 하남시장, 22일 천현초 5학년 1반 온라인공개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실천한 경험 등 얘기 나누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천현초등학교 5학년 1반 공개 온라인 수업에 참여, 환경 그린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업에는 5학년 1반 학생 26명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 소종희 천현초 교장, 서권용 천현초 교감 등이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앱 줌을 활용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수업은 천현초 양영은 교사가 환경 그린 프로젝트 '해블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주제로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체험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음료 구매 시 텀블러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남기지 않기 플로깅 등 각자 일주일간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디지털 저탄소생활에도 전기와 휴대 폰 데이터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동참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을 줄이니



책을 보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조금만 써도 환경오염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요", "우리부터 실천해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나갈 것 같아요"라는 등 느낀 점들을 얘기하기도 했다. 양 교사는 "우리가 일주일간 함께 실천해 줄였던 탄소 8211.95g은 소나무 1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나간다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수업을

함께 한 김 시장은 "저 역시 평소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다"며 "산책과 걷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배운 플로깅은 바로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시에 플라스틱, 폐비닐 등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며 "오늘 배운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널리 알려서 시를 건강하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근기자

### 이용섭 시장,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수상

코로나19 모범 대응, 저출생 대책 마련 등 공로 인정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55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의 권익 및 지위향상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용섭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대구와 병상 나눔을 연대하는 등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여성 권익 증진 실현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앞장 서 왔으며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 권



익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더불어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을 시리즈별로 발표·추진함으로써 공공돌봄을 확대, 부모들의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원아동보호사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했다. 이번 우수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은숙 부산진구 구정장 등 4명이 공동 수상했다.

김덕윤기자

### 시흥시,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전수

시흥시는 21일 6.25 참전 유공자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날 복지정책과에서 6.25참전유공자 권갑술 중사의 유가족에게, 배곧동 주민센터에서는 장복남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국방부와 육군에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훈장을 대신 수여 받은 유가족은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늦게라도 기억해주어 감사하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국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 제7회 이은방 백일장 심사결과 발표, 대상 최영근 님 '마늘로 선정 비대면 우편접수로 진행'

육천이 넘는 시조 시인 이은방 문학정신을 기려 우리 고유의 시조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제7회 이은방 백일장 심사결과가 발표되어 대상에 최영근 씨가 '마늘'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최영근 씨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학·일반부 장원 이은영, 고등부 이정윤, 중학부 이수민, 초등부 전하은이 각 부문 장원의 영예를 안는 등 24명이 입상했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 이지엽 시인과 이두의 시인이 맡았다. 대상을 받은 최영근씨의 '마늘'에 대해 "겨울을 잘 견뎌야 봄에 튼실한 마늘로 거듭나는 씨마늘처럼 어머니



가 요양병원에서 겨울을 잘 견디길 바라는 깊은 시적 사유가 함축적" 로 잘 표현됐다"며 호평을 받았다. 최만식기자

### 청송사과협회 우영화 회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

청송군은 23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2020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협회 우영화 회장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 올해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시상식만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도민상은 경북 도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타의 모범이 되는 도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4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우영화 회장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청송사과협회 등

다양한 농업단체 활동으로 과수 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송사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특히 2018년 6월부터는 청송사과협회장으로 청송사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생산자 조직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고품질 청송사과 생산과 청송사과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참여해 청송사과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송인용기자

맛 좋은 빛깔 좋은 영양 풍부  
영양 풍부로 만든 빛깔 좋은 곱기류  
검색 사이트에서 만나다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를 검색하세요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트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 '월간윤종신' 10월호 '느슨(Feat 신치림)' 오늘(23일)공개... "힘빼야 멀리 나아가"

#### 윤종신 "우린 참 복잡하게 살아가...느슨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가수 윤종신의 월간 음악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 10월호 '느슨(Feat. 신치림)'이 오늘 (23일) 공개된다.

'느슨'은 '느슨해져야 비로소 다시 보이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지난 한 달간 윤종신에게 오래 머물렀던 기분과 생각을 담은 발라드다.

윤종신은 "어머니 상을 치르는 동안 생각이 많아졌다. 바쁜 와중에도 장례식에 들러준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짊어진 채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며 "어머니가 떠나시면서 제가 주변을 다시 살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곡을 만드는 동안 윤종신은 자기 자신은 물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하림과 조정치를 떠올렸다.

그는 "이익이나 성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작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을 사람들에게 조금은 느슨해져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다"며 "하림과 조정치는 주변에서 가장 힘을 뺀 상태로 열심히 살고 있는 동료이기에 이 노래의 메시지와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오랜만에 '신치림'이 몽친 계기를 전했다.

이어 "이번 노래는 힘을 빼야 할 때는 빼자는 얘가지, 대중하자거나 욕심을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다"며 "늘 욕심을 앞세우면서 최선을 다하는게 능사는 아니더라. 야구에서도 힘을 빼고 배팅하면 더 멀리 나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슨해져야만 비로소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신이 작사, 작곡하고 조정치가 편곡에 참여, 하림의 하모니카 연주가 더해진 '월간 윤종신' 10월호 '느슨(Feat. 신치림)'은 23일 오후 6시, 전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전순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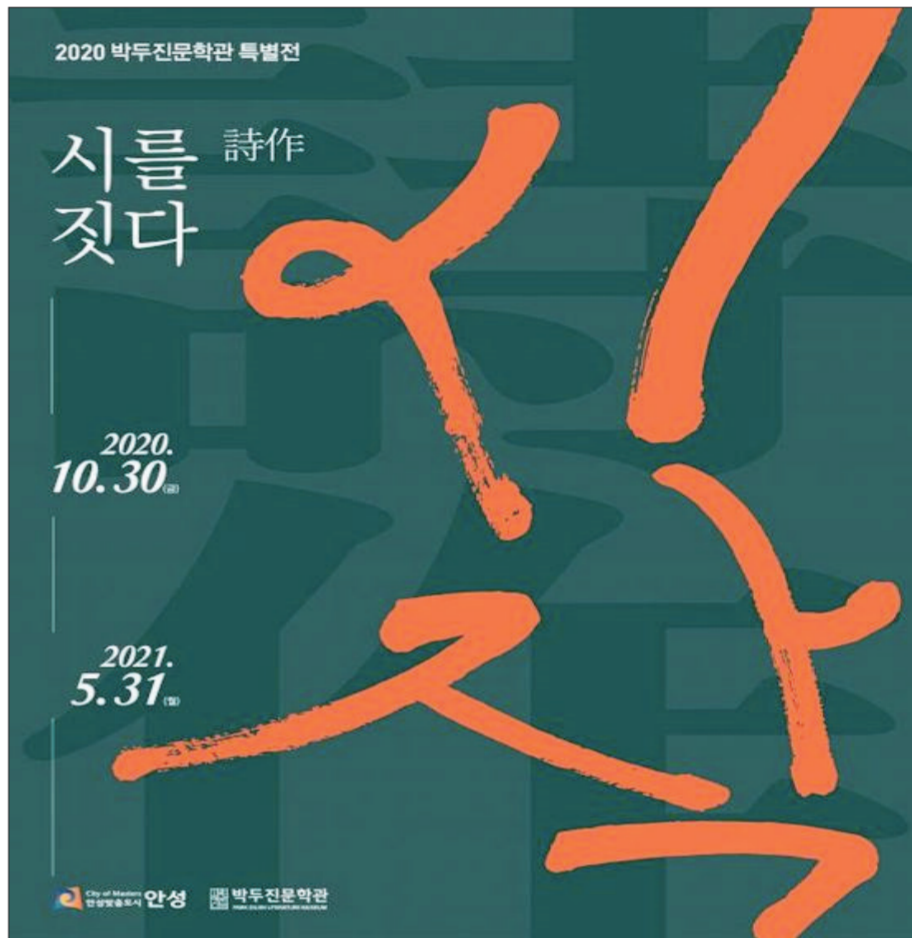
### 안성시 박두진문학관, 특별기획전시 '시작' 개최

상설전시에서 보기 힘들었던 희귀자료 원본 페이지 공개

안성시 박두진문학관은 오는 30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박두진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 '시작'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안성 출신 해산 박두진 시인의 등단 전후 출판되었던 시집을 통해 습작기 문학적 특징과 등단 이후 문학적 변모 과정을 소개한다.전시에 소개되는 자료는 '청록집', '문장' 등 박두진 시인의 등단 전후로 발간된 문학 자료와 상설전시실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 1939년 등단 이후 시를 쓰고 문학을 공부할 때 직접 보던 자료들의 내부 페이지 및 필사 원고 등 30여 점으로 100부만 발간해 현재 국내 5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백석의 '사슴', 박두진을 신인추천제로 등단

시킨 정지용의 '정지용 시집', 서정주의 최초 시집 '화사집' 등 예술적,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의 세부 내용이 다수 전시된다.특히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전시구성에 참여하는 체험형 전시를 선보여, 박두진 시 낭송·디지털 필사·필사작품 전시 등을 관람객과 함께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 박두진문학관 특별기획전시 '시작'은 단순히 교과서나 전시실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시집·소설집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가가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전시 개막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박두진문학관에서 진행되며 안성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남주기자



### 철원의 가을 합창으로 만끽하자 철원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개최

10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0.31. 오후 4시 화강문화센터 개최

철원의 가을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철원의 가을 철원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오는 31일 오후 4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화강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강원도·철원군은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선정해 공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다.강원도 '문화해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인 1시간 대표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공연은 지난 5월 개최된 '철원의 봄·태봉합창단' 공연의 뒤를 잇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의 동요 중창부터 장혜원 지휘자의 소프라노 공연까지 함께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관람료는 무료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사전예매 접수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해 진행할 예정이다.관람객은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확인 후 입장 가능하다.

김영근기자



### 부천시, '워라벨 랜선포크쇼'로 여성친화가치 확산

오는 28일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랜선포크쇼 개최

'2020 워라벨페스티벌 랜선 토크쇼'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천시여성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 된다.부천시 여성친화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토크쇼는 부천시와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공동 주최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소통의 장에서 패널들은 '코로나19 시대, 부천시민의 일과 삶'을 주제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부천시민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눈다.특히 패널 중에는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기능을 위해 여전히 대면 현장에서 일하는 '코로

나19 필수 노동자'와 경영상황 악화에도 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이 참여해 변화된 일터와 삶을 현장에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날 토크쇼 1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돌봄 노동자', '선별진료소에 간 방문간호사', '1회용품의 습격, 미화 노동자'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후 '마스크를 끼고 달리는 운수 노동자'와 '해고 없이 회사를 지키고 싶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크쇼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를 응원한다"며 "좋은 사례를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트로트와 국악의 흥겨운 만남



'진성&남상일의 희희낙락 콘서트'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오는 10월 24일에 '진성 & 남상일의 희희낙락 콘서트'를 세종국악당에서 선보인다.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여주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진성 & 남상일의 희희낙락 콘서트'는 전격적인 트로트 열풍에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가수 진성이 출연한다.여기에 화려한 입담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국악인 남상일 국립창극단 단원이자 국악계 명품조연 서정금, 가야금과 판소리, 모두 출중한 젊은 국악인 최예림과 라이브 밴드가 함께해 흥겨운 무대를 만든다.미스터 트롯의 멤버들도 사랑

하는 멘토 진성은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태클을 걸지마' 등의 히트곡을, 남상일은 '장타령', '홍보가 중박타는 대목' 등의 민요를 부를 예정이다.서정금은 특유의 깊은 소리로 '쑈대머리', '엄마아리랑' 등을, 최예림은 '아리랑 목동', '꽃타령' 등을 선사한다.여주세종문화재단 김진오 이사장은 "세종국악당을 5개월 만에 재개관하며 중장년층의 여주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길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한 좌석 띄어앉기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어 아쉽지만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재단 네이버 TV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 여주시민들의 문화적 감증을 채워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 제19회 김포예술제' 온라인 공연 개최

문화예술축제, 온라인으로 즐겨요

김포 지역예술인들이 벌이는 김포시 대표 지역문화축제인 '제19회 김포예술제'가 오는 24일 김포아트빌리지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 공연으로 개최된다.김포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포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제19회 김포예술제는 지역예술인들의 최대 예술축제로 지역예술인들의 국악, 무용, 연극, 음악 및 전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초대가수 김필이 함께 한다.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며 개최되며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로 송출됨에 따라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정하영 김포시장은 "지역 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한 이번 김포예술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없이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진도군 공고 제2020 - 723호

##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공고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여유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도군에서 조성한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를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 합니다.

2020. 10. 26.

### 진도군수

1. 사업의 명칭 :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나리 403-1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진도군수(진도읍 철마길 25)
4. 분양내역

분양용도	주택부지
주택부지	100필지
택지번호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참고	23_338㎡
평균분양단가	159,333원/㎡
우선순위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선착순에따라 결정
계약기간	추후 공지

#### 5. 분 양 신 청 가. 분양자격

가) 기본자격 :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거주를 희망하는 자

#### 나) 세부자격

- ① 진도군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도시민 및 기타거주자
- ② 본 사업에 대지외의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
- ③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 나. 분양우선순위

가) 주택용지는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위 순위의 다수가 접수할 경우, 우선접수자(선착순)를 계약대상자로 결정 한다.

나) 제1순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다) 제2순위 : 본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 라)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써 다음조건에 동의한 자
-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하기 위하여 공동설계, 공동건축, 공동관리를 입주민협의회에서 시행
  - ② 건축은 진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로 시공
- 마) 제4순위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로서 진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도서의 입면 형태에 준하여 건축하고 평형은 건폐율 및 용적율의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건축하고자 하는자
- 바) 제5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진도군 군내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 사) 제6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세대주
6. 분양신청 (입찰)시 제출서류
- 가. 분양(입찰)신청서 :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4) 신분증, 인감도장 (5)입주민협의회 가입 동의서(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 제출)
- ※ 우선순위별 선착순 분양(필지별 지번 및 면적은 진도군 홈페이지 참조)
- 나. 신청기간 : 2020. 10. 28.(수) ~ 2020. 10. 30.(금)
- 다. 신청시간 : 오전 09:00 ~ 오후 18:00까지
- 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우편 및 팩스, 인터넷 접수 등은 받지 않으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대리인일 경우)을 구비하여 접수가 가능함.
- 마. 분양신청, 계약장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성내리 64-1)
- 진도군청 지하상황실(지하1층) (061-540-3856)
6. 구 비 서 류
-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별지4호서식), 위임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구분	신 청 서
구 비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분양신청서 1부</li> <li>•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1부</li> <li>• 인감증명서 (용지분양신청용) 1부</li> <li>• 확약서 1부</li> <li>• 분양신청 유의서열람확인서 1부</li> <li>• 입주민협의회 가입 동의서 (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 제출) 1부</li> </ul>

#### 7. 용지분양 조건

가. 용지를 분양 받은 자는 용도별 용지의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건축물(진도군에서 제시한 표준설계)을 건립하여야 한다.

나. 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전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와 용지분양 계약서 및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신청 유의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도군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주택의 건축은 분양용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고)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착공이 불가 할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바. 분양목적(주택)대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용지의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8. 계약방법 및 소유권이전

가. 분양계약 토지에 대한 등기관련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분양계약 후,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 납부 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계약방법은 「농어촌생활환경경쟁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의한다.

#### 라. 분양계약 세부일정

- 2020. 11. 04. : 분양계약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 11. 06. ~ 10. : 분양계약 체결 및 체결사항 통보

- 2020. 11. 12. ~ 16. : 계약금 납부(고지서 발행)

#### 9. 분양대금의 납부

구분	분양신청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금액	분양예정가의10%	분양예정가의60%	최종분양가의잔금	분양신청금은 분양자로
납부시기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시	경정시계약금으로 활용 함.

※ 중도금 및 잔금 확정 및 납부 시기는 입주자 추진협의회와 사업시행자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 10. 기타사항

가.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되어있는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신청 유의서」에 의한다.

나. 분양공고문, 분양계획도, 분양가격, 분양신청유의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행정정보→군정소식→고시/공고→신기지구 전원마을 분양 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